

“장비 지원받고 근로자 4명 늘렸습니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이내정 레이스튜디오



아산재단이 지원한 제조기로 누룽지를 만드는 노인균 작업반장(왼쪽사진)과 참들고추마을방앗간의 근로자들.

노인균(32) 씨는 6년 전 오토바이 사고로 몸을 크게 다쳤다. 오토바이가 다리 아래로 추락해 왼팔이 부러지고, 장이 파열되었다.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고 몸이 회복될 무렵 집에 우환이 닥쳤다. 어머니가 우울증이 심해져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출하는 일이 잦아졌다.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피폐해진 그는 누에고치처럼 집에 틀어박혔다. 낮과 밤을 바꿔 생활하며 집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필요한 물건은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은둔생활이 이어지며 낙천적이던 성격은 소심하고 상대와 대화를 못 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조건부 수급자가 되었다. 일을 해야 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서 지난해 5년 만에 처음 집을 나서 당진시청으로 향했다. 시청의 주선으로 택배 일을 하다가 올해 들어 당진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참들고추마을방앗간(방앗간)으로 옮겼다. 방앗간의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젊고 건강한 그는 이내 작업반장이 되었다.

2003년 8월 설립된 당진지역자활센터(자활센터)는 노인균 씨처럼 자활 의지를 지닌 취약계층의 일터다. 자활센터는 카페테리아와 미용·영농·외식 사업단 등을 운영하며 70여명을 고용

했다. 방앗간에서는 4명이 일하다가 최근 4명을 추가 채용, 모두 8명이 자립의 꿈을 키우고 있다. 근로자들에게는 정부 시책에 따라 매달 80여만 원이 월급 형식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아산재단의 사회복지 지원단체로 선정돼 누룽지와 빵튀기 제조기 각 1대, 누룽지 밥솥 5개, 사무용 복합기 1대 등 1천만 원이 넘는 기자재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방앗간 매출은 3천만 원가량이었는데, 장비를 본격적으로 사용해 올해는 5천만 원쯤 될 것 같다”고 전망한 자활센터 구자민(55) 팀장은 “대형마트 등으로 누룽지와 빵튀기 과자의 판로를 넓힌 뒤 2016년 말에는 방앗간 근로자 3명을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다. 노인균 반장처럼 자립 의욕 강한 근로자들이 떡집 등을 창업할 때 아산재단이 한번 더 그들에게 기자재를 지원해주면 큰 힘이 되겠다”라는 바람을 덧붙였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100여 복지단체에 376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